

LG생명과학, B형간염 치료제 기대주

<LB80380> 임상2상 결과 발표 ... 부작용 및 신장독성 없이 효과 강력

LG생명과학(대표 양홍준)이 12월17일 미국에서 열린 <HEP DART 2003> 학회에서 독자기술로 개발중인 신규 B형간염 치료제 <LB80380>에 대한 초기 2상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다.

<LB80380>은 기존 제품의 한계를 극복한 차세대 B형간염 치료제로 2002년 10월 영국에서 임상 1상 시험을 완료한 데 이어 최근 홍콩에서 초기 2상 임상시험을 마쳤다.

1998년부터 개발에 착수해 미국 식품의약국(FDA)의 임상허가(IND) 아래 진행된 임상시험에서 <LB80380>은 초기 4주 투여 후 혈액 중 B형 간염 바이러스를 강하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으며, 고용량을 투여해도 특이한 부작용이 없는 안전성을 나타냈다.

특히, 국내외에 시판중인 제품이나 현재 임상 개발중인 약물과 비교할 때 B형간염 치료에 탁월한 약효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.

기존의 B형간염 치료 약물인 <인터페론 알파>는 비용과 치료효과 측면(치료율 약 30%)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기타 치료 약물도 1년 정도 투여하면 일부 환자에서 내성 균주가 생성돼 치료효과가 감소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.

반면, LG생명과학에서 개발중인 <LB80380>은 신장독성이 없으며 치료를 중단하더라도 재발억제 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차세대 간염치료제로 기대되고 있다.

LG생명과학은 “2004년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만성 B형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후기 임상 2상 시험과 라미부딘 내성을 갖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 임상시험에 착수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 <조인경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3/12/18>